

장애 아들 24시간 케어...날마다 가슴 저미는 '버거운 삶'

르포 - 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애인 형제 키우는 어머니 동행 취재

"더도 말고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18일 하루동안 같이 지낸 서춘경(57)씨의 애절한 기도이다.

두명의 발달장애인을 아들로 둔 서씨는 언젠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자녀 걱정뿐이다. 아들 두명 모두 20대지만 인지능력은 초등학교 이하 수준이라 평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 사는 서씨는 지적장애인 아들 송동규(28)씨와 송혁진(27)씨를 홀로 키우고 있다. 남편은 몸이 아파 전남대병원에 6년째 입원 치료중이다.

2급 장애를 가진 첫째 아들 동규씨는 초등학교 수준의 지능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성격도 온화하고 말귀도 잘 알아 듣기 때문에 그룹홈(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형 주거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서씨의 아픈 손가락은 둘째 혁진(1급 장애·5살 정도 수준)씨다. 혁진씨는 성격이 드센편이라 말도 잘 듣지 않고 때스는 것이 일상이다. 결국 입소한 그룹홈에서 적응하지 못해 두 달만에 쫓겨나 엄마인 서씨가 돌볼 수밖에 없다.

평일(오전 8시 40분~오후 4시)에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다닐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혁진씨가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 일주일에 두번도 채 가지 못할 때가 많다.

혁진씨는 집 안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온갖 아끼는 물건들을 쌓아 놓는 것을 좋아한다.

아들도 방 한구석에 마스크부터 인형, 옷, 쓰레

기, 문구류 등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서씨가 치우려 하자 소리 지르며 거부했다. 조금이라도 성에 차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때 쓰며 욕하고 고집을 부리기 일쑤다. 서씨가 달래고, 화내고 울면서 부탁해 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서씨는 아이들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이런 애를 키우냐'라거나 '당신도 장애인 같다'는 말을 스펀 없이 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시선도 날카로운 송곳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결국 서씨 모자의 행동반경은 집 앞 전변과 동네 산책이 전부다. 아이들이 4살 때 장애판정을 받은 이후 변변한 가족여행조차 기본적인 없었다. 하지만 이날 서씨는 몇 달만에 마음 먹고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오전 10시 30분께 서씨는 둘째가 좋아하는 산책에 나섰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던 혁진씨는 서씨가 "사진 찍으러 천변가자"고 말하자 활짝 웃으며 신나서 웃을 쟁겨 입었다.

산책을 마친 모자는 혁진씨가 좋아하는 색깔공부책을 사기 위해 인근 서점으로 향했다. 혁진씨는 잘 아는 길이라며 앞장섰다. 가는 길에 만난 한 어르신은 "아이가 많이 아파요?"라며 물었고 서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이가 아파서 제가 옆에 있어야 돼요"라고 말 끝을 흐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씨는 앞서가는 아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혁진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부딪칠 뻔 하기도 했고 달려오던 자전거가 아슬하게 비껴가기도 했다.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혁진씨는 들은척도

하루하루 초긴장에 공황장애까지 다니던 직장도 6년 전 그만뒀다. 변변한 가족여행 가 본 적 없어 아픈 남편은 6년째 입원 치료 중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 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 필요

하지 않았다.

이윽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스피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아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릴까 우려해 오래전 설치한 기기다. 집에 돌아온 서씨는 허리를 연신 매만졌다. 몸이 좋지 않아 10년간 했던 재활정소 미화일도 6년 전 그만뒀다.

서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울화통이 쌓여 불안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나마 주말에는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주고 있어 숨통이 트인다. 활동지원사가 혁진씨를 맡을 때만 겨우 시간이 나기 때문이다.

서씨는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라는 생각 뿐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발달장애는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달리 전 생애에 걸쳐 부모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돌봐줄 조부모도 없고 남편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 부탁할 사람이 없고, 글씨도 모르는 아이에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일까,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잘 수 있을까, 오



발달장애인 송혁진(27)씨와 엄마 서춘경(57)씨가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산책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지 않은 미래를 매일같이 걱정한다는 것이다.

서씨는 "내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좋아하는 뜨개질을 마음껏 하고 싶지만 가장 큰 소원은 아이들의 마지막까지 잘 돌봐줄 수 있도록,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다"면서 "가끔씩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발달장애인들을 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발달장애인은 총 7871명으로, 광주시 전체 장애인(7만 185명)의 11%에 달한다. 이중 지적장애가 7018명이고 자폐성장애가 853명이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발달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 대책 마련해 주요"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촉구

광주지역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광주시교육청에 '장애학생 방학 중 돌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이하 연대)는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특수학교 운영 방안 마련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연대는 "방학이 시작되면 장애학생은 민간 교육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학은 장애학생에게 '교육의 단절'이자 부모에게는 교육을 온전히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형벌' 기간이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육의 방학은 온전한 교사들을 위한 시간이며, 이 시기 장애학생은 민간교육에만 의존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장애 학생의 방학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2010년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학생 방학학교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장애 학생 방학 교육은 효율적, 체계적으로 발전했지만 장애학생들의 방학은 예산만 증대했고 학교와 교사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교육청이 교사들의 눈치에 못 이겨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방과후 학교로 축소·변형하려고 한다"며 "만약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기한 농성까지 감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요양병원 보일러실 불...긴급 대피

화순소방은 19일 오후 2시 40분께 화순군 화순읍의 한 요양병원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병원 내에 있던 환자와 의사 등 총 136명이 대피 및 구조됐으며, 이 중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지하 보일러실 보수·수리 작업을 하던 중 용접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0일에도 보일러실 화재가 발생해 환자 등 1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때 화재로 지하 배전반이 고장났는데,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 판결 2세

30km 속도제한 도로서 180km 주행 법원 "급발진·제동장치 고장" 고려

시속 30km 속도제한 도로에서 180km의 속도로 주행하다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사망케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여·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13일 오후 9시께 보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중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고, 조수석 동승자 B(여·6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 500m 앞에서부터 시속 114km로 과속하기 시작했고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감속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주행했다. 차량속도는 시속 164~184km에 달했다.

A씨는 사고 지점 140~170m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을 들어 급발진 또는 브레이크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에서 제동등이 켜진 모습이 확인됐고 시속 120여km까지 속도가 줄었지만 이후 전혀 제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고지점까지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30년간 한 번도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신체적 지병 등도 발견되지 않은 점, 제동등이 들어온 시점부터 정상제동이 됐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차사고 후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 운전자가 발견한 뒤 1~2초 후 충돌

30여 초 전에 발생한 1차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차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 대해서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월 13일 오후 7시 10분께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차로의 국도에서 보행중이던 C(7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로의 중간에 넘어졌다가 상체만 일으켜 세운 채 누워있던 C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걸어가던 중 B씨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넘어지는 1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37초 동안 그대로 누워있던 뒤따르던 A씨의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누워있던 점, 차량의 전조등으로 C씨가 보이는 순간부터 1~2초만에 충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1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오늘, 매일, 그리고 미래의 가치

오늘, 지친 마음까지 밝혀주는 건 전기가 가진 하루의 가치입니다

매일매일,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건 전기가 전하는 365일의 가치입니다

100년 후에도, 하늘과 숲을 푸르게 하는 건 전기가 만들어갈 100년의 가치입니다

오늘, 매일,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의 삶이 풍요롭도록 합리적 전기요금으로 국민과 함께 전기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기본공급약관 개정 사항 안내

('23.1.1 시행)

01 전기요금 조정

모든 소비자 11.4원/kWh 인상 (단, 농사용은 3년간 분할하여 매년 3.8원/kWh 인상)

02 기후환경요금 조정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1.7원/kWh 인상 (7.3 → 9.0원/kWh)

03 취약계층 보호 ('23.1.1 ~ 12.31)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할인 고객 월평균 사용량 313kWh까지 요금 동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단가 적용)

04 제3자·직접PPA 고객용 전기요금 신설

재생에너지 거래 고객의 합리적·효율적 전력소비를 위한 전용요금제 신설

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한국전력(www.kepco.co.kr) 또는 관할 한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